

부이비엔

단과 저는 걷고 있어요 이 여름밤에 충무로역에서 내려 언덕을 한 번 오르고 학교를 한 바퀴 걷고 팔정도에 매달린 연등을 감상합니다 부처님께 기도도 드리고요 코끼리는 멈춰 있고 멀리서 빛나는 남산을 한 번 보고 서른 전엔 죽고 싶었던 단 옆에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시다만 손잡고 묵묵히 내려오는 길에 너무 많은 오토바이들을 보았습시다 문 닫은 가게 앞에 매연 냄새 진하게 풍기며 줄지어 선 오토바이들요 여긴 베트남도 아니고 호치민도 아니고 부이비엔 거리도 아닌데 여름밤의 전광판은 빛나고 사람보다 오토바이가 많고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관광객은 길거리에서 값싼 과일을 먹고 사진을 찍고 가격을 흥정합니다 노점상의 앞전구가 흔들리고 시끄러운 클럽 노래가 가게마다 나오고 단과 저는 맥주를 마시며 걷습시다 쪽 걸었습시다 여전히 말없이 우리는 소리를 지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단은 너무 답다고 합니다 온몸이 끈적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단은 원래도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고 여름을 싫어하고 오토바이가 뿜는 열기는 더욱 미워하는 사람인데 단은 어째서인지 저와 함께 베트남에 와주었습니다 호치민에 부이비엔 거리에 코끼리가로 위를 걸어가는 먼 곳으로의 여행을 저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낯선 이의 오토바이를 빌려 부이비엔을 빠져나왔습니다 입안에 남은 모닝 글로리를 꼭꼭 씹으며 이다음에 내릴 거예요 충무로의 오토바이는 시동 걸리지 않습니다